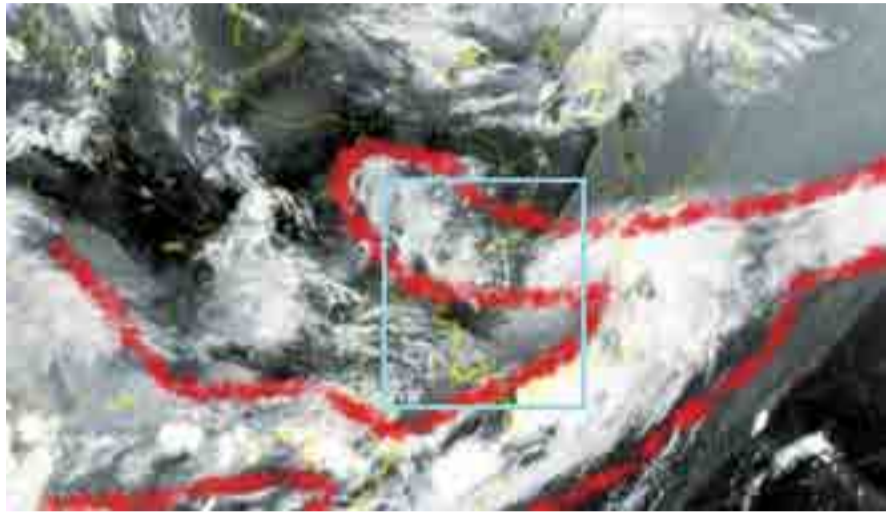


분신의 능력 있어야 구세주

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이 재림 예수요 자신이 정도령이요 자신이 구세주 인이요 자신이 미륵불이요 등등 모든 경전과 예언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그런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주인공이 수십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일 그들이 전부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라면 이 세상이 금방 좋은 세상으로 변화될 것 아닌가?



《기상청, 위성 영상 사진》 7월 6일, 한 네티즌이 기상청에서 캡처하여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
▲ 일본과 중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유독 한반도의 남한만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 / 기상청 동영상(2020. 07. 06) : <https://youtu.be/aHvLT8OgBCI>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많은데, 왜 세상은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자칭 주인공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왜 세상은 금방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는 건가? 지금 코로나 19와 같은 괴질이 돌고, 전쟁과 살육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들의 출현은 세상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용한 일인가?

일반적으로 기도생활을 오래 하거나 도를 많이 닦으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거나 하나님의 신을 영접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가 나가기도 하고 신통력을 부리기도 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맞히기도 하고 불치병을 고쳐주기도 한다. 그리하여 순식간에 많은 신자들을 끌어모으며 능력을 발휘하며 종교를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순수함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다. 많아야 3년 정도 가지 그 이상 가기가 어렵다는 거다. 그래서 순수함이 변질되어서 사리사욕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거다.

예를 들면 자신과 섹스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거나, 재물을 많이 바쳐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거나 등등 이런 예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매스컴에 등장하는 반사회적 행태가 바로 그런 것이다.

세계 최대 교회라고 자랑하는 조 모 목사님 비롯하여 대형교회 목사들이 교회 재산을 횡령하거나 가족들에게 주는 불법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타락한 일례다. 교회를 세습해 주거나 성직을 세습해 주기도 한다.

더 나아가 속세를 떠났다고 하는 이들이 도박과 축첩을 하고 신도들을 성폭행 성추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성직자들을 오히려 세상사람들이 걱정해야 할 세태가 마냥 씩씩하기만 하다. 정녕 이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건가?

아니다. 희망이 있다. 진짜 주인공이 출현했기에 찾는 법만 안다면!

진짜 주인공이라면 자신만이 유일한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만일 오직 자신만이 유일하고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자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분명히 가짜요 종교 사기꾼이다.

주인공은 반드시 누구든지 노력하면 자

신과 동일한 능력과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이며 평등하기 때문이다. 나만 특별하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하거나 유아독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진짜 주인공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라고 말씀하게 되어 있다.

진짜 주인공은 인류를 모두 자신의 몸으로 생각해야 한다

인류의 아픔과 슬픔을 자신의 아픔과 슬픔으로 생각해야 하며, 인류의 고통과 불행은 자신의 고통과 불행으로, 인류의 기쁨과 행복은 자신의 기쁨과 행복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인류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존재는 결단코 진짜 주인공이 아닐 것이다.

진짜 주인공은 인내력이 한도 끝도 없이 강한 분이어야 한다

어떠한 고난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참음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누가 성질을 돌출지라도 전혀 성내지 아니하고 웃음으로 이겨내는 존재여야 한다

만일 진짜 주인공이라면 분신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인군자들이 이 세상에 출현했지만, 그들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것은 말씀만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모범을 보이는 것 또한 그리 어렵지 않다. 문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능력이다. 바로 그 능력이 분신의 능력인 것이다.

분신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몸이 수억천만 개로 쪼개져서 각 개체의 분신이 본체와 동일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분신은 사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볼 수도 있다.

또한 진짜 주인공이라면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태풍을 못 불러오게 막기도 하고, 옆으로 비켜서 가게도 하고, 즉시 소멸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진짜 주인공이 1981년 출현 이후로 약 40년간 비농사가 연속 풍년이다. 이윤인적 정미비(6월 15일에서 7월 15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오는 비)를 못오게 하겠다는 주인공의 권능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기상청, 위성 영상 사진 참조》

장마철 이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논이 잠겨도 이미 뿌리를 내린 모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7월 15일 이후부터는 다른 농작물과 달리 홍수가 나서 논이 물에 잠기더라도 벼이삭이 패어 벼 수확을 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속에 있는 신념과 주의(主義: 이념)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구세주는 분신의 능력으로 공산주의자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공산주의를 없애버렸던 것이다.*

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지구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품고 있는 습관하기에 그 악습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낯설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승리제단 사람들은 그 마음과 몸에 어떤 악습이 배어 있는지 관찰하고 각자 자기 자신에게 스며있는 습관을 제거하는 데 열심을 낸다. 어떤 사람은 헛기를 자주 내는 습관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심을 자주 내는 습관을 제거하려고 땀을 흘린다. 죽음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적 습관을 제거하는 애씀은 승리제단 사람들 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공통적 내용이다.*

James Ahn / 호주 시드니 제단 책임사
0415 727 001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90> “하나님의 마음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다”

원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므로 한계가 없었으며 천 년 만 년 영원무궁토록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투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주위환경의 자극을 받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졸렬한 마음이 아니었다.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화를 내고, 신경을 내고, 못마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마귀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다. 원래 사람의 마음은 감정에 휘말려서 요령다 조렸다 하는 변덕이 심한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고로 나라고 하는 주체의 마귀 영을 미워하고 계속해서 짓이겨라. 나를 미워하고 짓이기는 것이 자유율법을 지키는 생활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방법

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인 것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육부六腑의 이해(1) - 대장(大腸)

대장은 큰창자라고도 합니다. 맹장, 충수, 결장,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맹장, 직장을 제외한 결장만을 대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길이는 약 1.5미터로 전체 장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소장 다음에 이어지는 소화관으로 음식물의 수분 흡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저장, 배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분해 과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bacteria)들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대장에는 무려 700종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대장에 서식하면서 여러 생산물을 만들어 냅니다. 소장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다당류(polysaccharide)는 박테리아에 의해 짧은 길이의 지방산(fatty acid)으로 변화하여 대장에 흡수

됩니다. 또한 소량의 비타민(vitamin)을 생산하는데 여러 비타민 중 특히 비타민 B, K가 생산되고 흡수됩니다. 이렇게 흡수되는 비타민의 양은 하루에 필요한 양에 비하면 소량에 불과하지만 음식을 통해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경우 이 정도의 비타민도 큰 역할을 합니다. 만약 박테리아에 의해 만들어진 비타민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antibiotics)를 복용하면 비타민 부족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생산물은 가스가 있고, 이것은 질소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소량의 수소와 황화수소, 메탄이 섞여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다당류를 박테리아가 발효하면 이와 같은 생산물이 나옵니다.

세균들은 영양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 생산뿐만 아니라 숙주의 기관형성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맹장

(caecum)과 림프샘(lymphatic)과 같은 기관의 형성에 장에 서식하는 세균은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또한 외부 세균이기 때문에 면역계(immune system)을 자극하여 자신에 대한 항체(antibody)를 만들게 합니다. 이러한 항체는 이 세균과 비슷한 균이 몸에 침입했을 때 효과적으로 침입한 균을 막습니다.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 중에는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대장에 상처가 나면 이 세균이 공격하여 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장의 점막층(mucus layer)이 대장을 이들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래서 점막층을 점막방벽이라고 부릅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사람의 몸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정精(精) 기氣(氣) 신神(神)으로 동요(動)하는 것으로 동요(動)하는 것은 삼보(三寶)라고 합니다. 정은 음식물이고, 기는 호흡이며, 신은 정신의 작용입니다. 건강하다는 건 숨을 잘 쉬고 음식물을 잘 먹어 소화 배설시키고 마음이 편한 상태를 말합니다.

얼굴의 각 부위는 오장육부와 관련이 있는데, 코는 대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에 뽀루지가 나는 것은 폐와 대장이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장은 몸을 만드는 음식물이 소화를 거쳐 불필요하게 되는 것들이 체외로 배출되기 위해 모이는 기관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엄청난 독가스(毒)와 유해작용을 초래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먹는 것에만 신경 쓰는데, 이는 크게 잘못 되었습니다. 항상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적절한 운동을 해서 대장에 썩은 음식물이 없도록 제 때 배출해야 할 것입니다.*

김주호 기자

습관

죽음을 당연시 하는 악습을 버려라

성인인데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習慣) 때문에 10개 손가락 끝이 엉망인 사람을 보았다. 위생적으로 아주 나쁜 습관 때문이다.

사람이 지닌 습관을 관찰해 보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고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이랄 만한 습관도 있는가 하면 태어난 이후 자신이 만든 습관도 있다. 좋은 습관이야 두말할 필요없이 일부

러 버릴 필요가 없는 거고 나쁜 습관을 찾아내어 몸에서 떼어내는 것이 문제다. 습관은 몸에 배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좀처럼 떼어내기가 어렵다.

불교(佛敎)를 공부해서 성불(成佛)을 이루려는 사람이 본인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지 관찰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불교인을 포함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아주 무서운 습관 한 가지를 소개하여 본

다. '죽음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순응하여 받아들이는 마음적 습관'이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일을 당연시하는 그 마음이 아주 먼 옛날부터 내려온 광장한 악습(惡習)이란 사실을 아는 자가 없다. 이 무서운 악습의 발견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든다. 세상 공부를 많이했다는 사람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그리고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인상을 찌그러뜨리거나 거칠게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하기사 그것도 그럴 것이 3대나 4대에 걸쳐 내려온 습관도 아니고 수천 년을 두고 내려온 습관이고 일부 국지

경축 90회 성탄절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 조희성님의 성탄을 경축드립니다



본부제단 7월 성적 1등 2지역 개인 1등 김혜선 권사



2지역 회장 김혜선 권사가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윤봉수 신도회장)은 8월 4일 구역장회의를 열고 본부제단 7월 성적 우수자 시상식을 거행했다.

*지역 1등: 2지역(지역장: 서보목,

- 지회장: 김혜선
-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3등: 6지역(지역장: 안병천, 지회장: 석선자)

- *구역 1등: 15 구역(구역장: 김혜선)
- 2등: 44 구역(구역장: 이수영)
- 3등: 53 구역(구역장: 석선자)

- *개인 1등: 김혜선 권사
- 2등: 이수영 권사
- 3등: 석선자 권사*